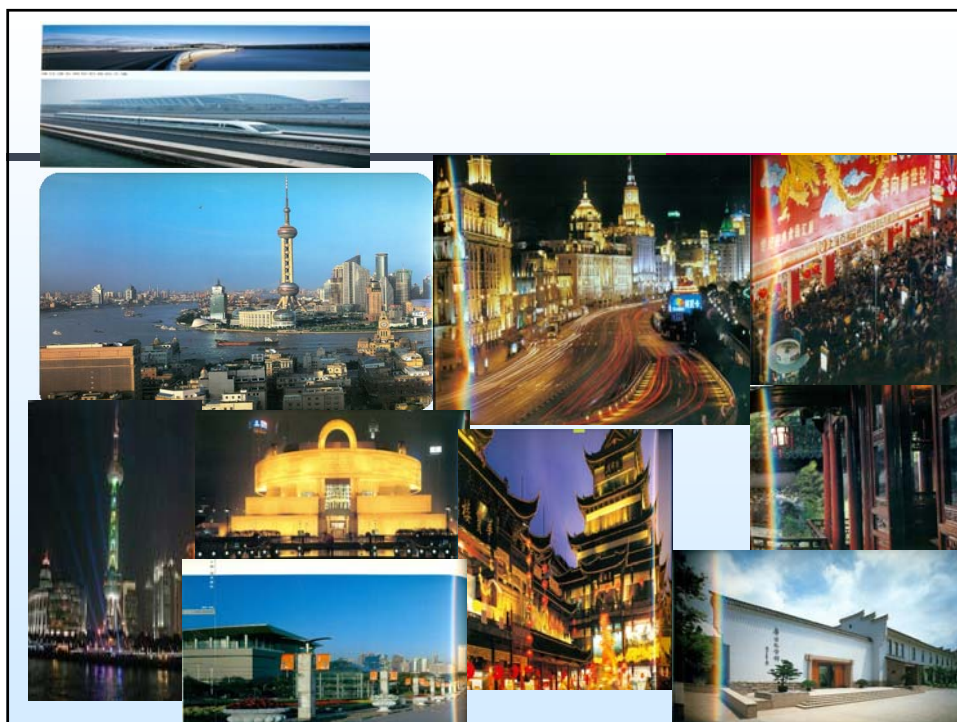


중국 근현대사와 상하이(上海) :모던, 혁명, 개방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최은진)



상하이의 지리적 특징

- ▣ 와이탄(外灘)
황푸강(黃浦江) 건너의 동방명주(東方明珠)
- 창장(長江)과 태평양 바다가 교차하는 지역
중국 전체 해안선의 정중앙에 위치
나가는 출구이자 들어오는 입구

- ▣ 상하이 면적 6340제곱미터- 서울의 10.5배
- ▣ 인구 : 1858만- 서울의 1.8배
- ▣ GDP- 2007년 1인당 8500달러(중국 전체 평균의 3.5배)
- ▣ 푸둥(浦東)개발, 양산항 건설, 2010년 엑스포 개최
- ▣ 화려한 야경

1. 중국 근현대사 속의 상하이에서 주목해 볼 점

- ▣ 상하이는 과거 중국 자본주의 발전의 시간으로 또한 공간으로 기억됨
- ▣ 세계적 도시, 동방의 파리, 동아시아 무역의 허브 등 모던의 상징
- ▣ 식민과 근대성의 양면적 모순의 공간
- ▣ 신중국 이후 퇴폐와 타락의 공간에서 상하이꿈을 탄생의 공간으로 변화
- ▣ 개혁개방 후 침몰하는 거인에서 중국의 화살촉으로 부상
- ▣ 라오상하이(老上海)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왜 일어났는가.
- ▣ 사회주의시기 유산은 계승될 것인가.

Ⅲ. 개항과 모던 상하이 짧은 역사

- ▣ 춘추시대는 뭇나라의 동쪽 변경지대 臥薪嘗膽/
- ▣ 전국시대는 楚나라- 초나라 春申君의 봉토, 申으로 불리기도
- ▣ 滬(호) :晉(4-5세기) 상해 松江(쑤저우허)와 해안일대에서 죽통의 물고기 통발을 호라 불렀고 여기서 유래
- ▣ 751년 唐 천보년간- 화팅현(華亭縣)/상하이진(鎭)명칭-(상해란 바다로 나간다는 뜻)
- ▣ 1267 南宋시대- 관공서, 학교 등이 건립되는 작은 어촌의 모습을 갖추

- ▣ 元代 1291년 상하이 縣은 쑹장, 칭푸 등 관할
- ▣ 明末淸初에도 손바닥만한 작은 읍
- ▣ 명대 왜구를 막기 위한 원형의 성곽 (1553)
- ▣ 청대- 광저우, 샤먼, 닝보보다 해상무역 미약

- ▣ 1840년대 항저우, 쑤저우의 유구한 역사와 비해 초라함

개항과 상하이

- ▣ 1842년 난징조약 체결로 (광저우, 푸저우, 샤먼, 닝보)
1843년 상하이항 개항

세계질서에 강제 편입

---반식민지에서의 탈피와 근대성의 실현이라는 두가지 과제에 놓임

2. 조계(租界)- 중국인과 개는 들어오지 말라

- ▣ 조계지(租界地) 설치: 개항도시의 외국인 근거지/ 경찰, 사법, 행정권이 외국인에게 주어짐

고급주택(별장-푸시)-9.5%/사무직원, 매판상인 중산층은 아파트(4.3%)/서민 농탕(72.5%), 하층민의 낡은 천막(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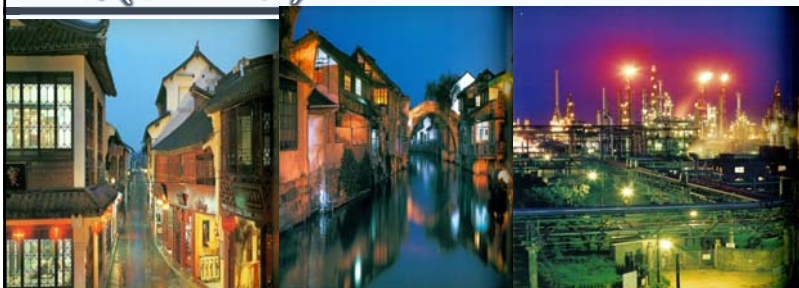
굴욕의 역사

- ▣ 황푸공원(1868년 영국 영사관 앞)- 중국인과 개는 출입금지- 반제국주의운동
 - ▣ 1927년 7월- 상하이 특별시, 근대도시가 됨
 - ▣ 근대 상하이의 역사- 3家 2方제도- 중국, 공공조계지, 프랑스 조계지/ 중국과 서방 공존
- 공동조계 :황푸취(黃浦區), 징안취(靜安區),
홍커우취(虹口區), 양푸취(楊浦區)
프랑스조계: 루완취(盧盧區), 쉬후이취(徐滙區)
중국: 자베이취(甲北區), 난취취(南滙區)

상하이 구역



민항취(첼보진),칭푸구(주가각),진산취(금산구)



3. 주거: 농탕

- ▣ 농탕(弄堂)- 개항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상하이의 주거방식/ 베이징의 후통(胡同)(스차하이 사합원)
: 길 옆으로 늘어서 서로 연결되고 밖을 향해 열려 있는 개방형 문화 의미
- 1854년 태평천국 난으로 중국인이 외국인 조계지역에 밀려들어와 주택부족 문제 발생
부동산 활황, 유럽식 연립주택형 목조건물--
화재위험으로 다시 벽돌을 혼합하여 건축

- ▣ 스쿠먼(石庫門)-화강석 혹은 닝보 지역의 홍색 벽돌 문틀
- ▣ 문 양쪽에 문기둥
- ▣ 문에는 그리스, 로마시대 조각, 중국식 문양
- ▣ 동서융합적 특징
- ▣ 1870년대의 중서융합적 혼종문화 특성
- ▣ 농탕의 방구조- 소가족, 핵가족 규모
- ▣ 보통 1층은 생필품점, 이발소, 신발수선집..

자유로운 창작지대

- ▣ 퉁즈지엔(亭子間)문학 탄생; 2층과 3층사이의 좁은 공간, 싼 임대료(어둡고 좁음)
- ▣ 루쉰(魯迅), 귀머루(郭沫若), 마우뚱(茅盾), 덩링(丁玲), 바진(巴金) 등 상하이 작가들의 생존 공간

신티엔디(新天地)-스쿠먼 양식을 개조

겉은 중국양식, 안은 서양레스토랑, (중공一大會址)에서 만 말

- 홍콩 루이안(瑞安)그룹이 18억 위안 투자, 1999-2001완공

노동자의 등장

- ▣ 노동자들이 거주한 천막 등은 주거시설이 매우 열악-불결한 위생상태 등으로 병에 노출
- ▣ 노동자들의 어린자녀들도 장기간 노동에 시달렸으며 비단실을 만드는 공정과정에서 뜨거운 물에 늘상 손을 넣어야 했음
- ▣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서 스스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도 하여 독립적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경향이 나 대도시의 사치품을 사는데 탕진하기도 하는 등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도 등장

4. 상하이: 대외무역의 심장

- ▣ 주요 대외무역품- 차, 비단, 아편
- ▣ 상하이항은 내륙운하 항구인 쑤저우와 항저우, 난징보다 지리적 천혜의 위치
- ▣ 1870년 상하이가 대외무역의 63%차지

---광저우와 홍콩보다 앞섬

Cf. 1986년 광저우가 상하이를 초월

상하이의 확대 : 1855년 난민 유입

1894년 청일전쟁 이후 금융, 기계, 교통, 우편, 통신 등의 급속한 발전 : 인프라 구축

중국내의 유태인- 상하이인

1902년 상하이 상업회의公所 성립

1912년 상하이 총상회 성립

정부의 정치적 압박,

외국기업에 편향된 환경에서 서로 도와 방직업, 석탄업계 등에서 대표적 기업가를 배출

민족자본가도 출현

실리추구 상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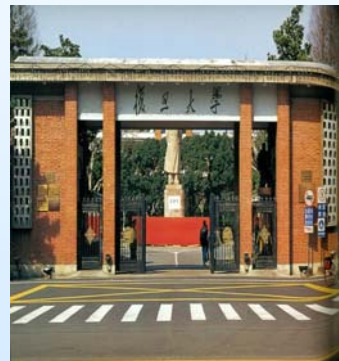
- ▣ 상하이인은 잦은 궤를 부리되, 큰 악은 없다
- ▣ “가난은 비웃어도 몸 파는 창기는 비웃지 않는다.”
- ▣ 실리추구적 실용주의: 외국인에 대해 굴욕을 느끼고 저항 동시에 밀접하게 접촉하고 상호의존적 관계 맺음
- ▣ 매판층: 외국기관 근무, 서양생활방식 흡수
 - 전족 폐지, 승관발재 의식 없고, 공공사업, 자선사업 등에 앞장서기도
 - 혁명운동, 입헌운동을 도움
- ▣ 쑹아이링(宋靄齡, 송애령), 쑹칭링(宋庆龄, 송경령), 쑹메이링(宋美龄, 송미령)

5. 교육기관, 매체의 중심지

- ▣ 1875년 24개의 외국어 교육기관
- ▣ <申報>
- ▣ 조계라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
- ▣ 신문 언론 매체를 통한 혁명활동도 가능

지식인 집중교육- 학회, 고등교육기관
인구유동성 높아지면서 개방적 문화형성의 인프라 형성

- ▣ 서양문화, 서학 전파의 주요기지 관문
- ▣ 신문물 수용의 주요기지화
- ▣ 출판- 중문 번역서의 85%
- ▣ 자본주의 시스템, 민간조직의 경험 존재



모던(modern) 상하이



6. 모던 라이프와 가치관

- ▣ 백화점
- ▣ 대형극장
- ▣ 난징루의 고급양복점
- ▣ 와이탄변의 금융가
- ▣ 도시생활의 여가시간 출현

중산층 가정이 출현: 항저우 등 주변으로의 여행

여가문화 및 여행단체도 결성

- ▣ 이성적, 법규중시, 과학적, 공업발달
+ 농업위주 산업구조
 낮은 효율, 전통관습, 직관적, 인문주의적인
 폐쇄된 중국문화
=====두 문화가 결합, 동시에 작용
- ▣ 상하이 명칭- 성장엔진, 魔力의 도시
 천 개의 얼굴을 가진 여인
 가장 사치한 도시, 가장 우아한 도시

혼종 문화의 형성: 국제도시

- ▣ 이국적 풍경과 중국적 요소의 혼합
- ▣ 무스잉 穆时英 - 상하이 폭스트롯(上海的狐步舞)- ‘지옥 위에 세워진 천당’(1920-30년대)
- ▣ 국제도시로의 변영
- ▣ 이면의 타락하고 추악한 모습 공존
 : 귀신세계, 부르주아계급의 오염세계
--동경의 대상이자 수치의 대상
- ▣ 상하이 조계는 굴욕의 장소이면서도 자유로운
 정치활동, 출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곳
- ▣ 동방의 파리 -국제도시

하이파이(海派) 문화

- ▣ 상해의 실질, 상업VS 학문적, 정치적(경극)
베이징의 경파(京派)
- ▣ 해파란? 20세기 초에 근대 상하이의 예술,
문화, 생활방식 등 다양한 상하이의 도시문
화를 일컬음
 - 새로움, 다양성, 유행 추구(영화, 패션, 음식)
 - 서양문화, 상업문화, 조계제도, 이민사회
등이 복합 서양문화와 동일시되고
편하하는 의미도 내포

하이파이 도시문화 :모던 문화(1920-30년대)

- ▣ 자본주의적, 상업적, 대중지향적 : 통속과 우
아함이 함께 섞인 **고품격 통속문화**
- ▣ 다채로운 문화, 예술, 음악, 희곡이 발전
- ▣ 1920-30년대 발전: 모던(摩登)문화
- ▣ 자본주의의 모험정신, 기업가 정신, 자유경
쟁, 사유재산, 능력 우선, 근검, 근면, 이익추
구, 직업도덕과 직업정신 등이 형성됨

상하이인의 특성

- ▣ 베이징에서는 상하이에 대해 사농공상의 개념으로 좋게 평가치 않음
 - ▣ 상하이는 자신 외 지역을 시골로 여김
- 상하이방언- 상하이런(상하이인) 정체성 표현의 도구
 위취우(余秋雨)- 상하이런은 중국 근대사 이후 가장 모호한 사람들
- “상하이 사람 없이 살수 없으면서 상하이인을 싫어 한다. 똑똑함, 계산적, 자유분방, 교만, 배타, 정치무관심, 이기적, 유행에 민감, 단결의식 부족, 인색함 등이 외부인에 비친 상하이인의 모습- 배타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자는 캠페인

상하이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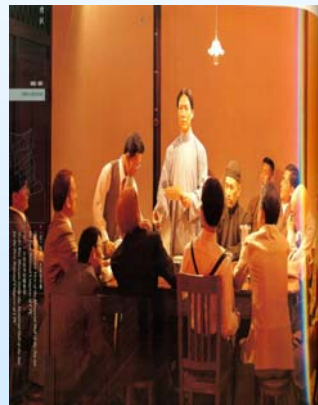
- ▣ 상하이 남자- 가사의 대부분 감당
 - ▣ 린위탕(林語堂)-<나의 나라, 나의 백성>
- “북방 중국인은 단순, 소박, 힘든 생활에 익숙하다. 키가 크고 건장, 친절하고 유머가 많다....창장 이남에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부지런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처세에 강하다. 두뇌가 발달했고 체격은 왜소하다. 똑똑한 상인이자 글솜씨 있는 문학가이나 전쟁터에서는 겁쟁이다.”
- 1997년 대만 여작가<아, 상하이 남자여>

암흑의 세계- 상하이幫

- ▣ 암흑의 세계도 존재했다. 마약과 매춘 등이 방조직과 연결되어 지하세계를 형성
- ▣ 정부와 권력자와 서로 결탁하여 이러한 조직과 이익을 증대시키려
- ▣ 상하이 지역은 개방적이면서도 개방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식민적 상태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형성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7. 혁명의 기지

- ▣ 신해혁명 후 혁명적 성격 강화
- ▣ 싱예루(興業路) 76호- 중국공산당 일전대회 유적지(1921년 7월 23일)
- ▣ 상산루 7호- 쑨중산 고거
- ▣ 화이하이중루 1843호 쑹칭링 고거



- ▣ 1919년 5.4운동시기 삼파투쟁
- ▣ 일본상품 불매운동
- ▣ 1927년 4.12쿠데타
- ▣ 상하이 임시정부(1919.4.11 각 도 대의원30명 모여 임시헌장 10개조 채택, 1932년 항저우로 옮길때 까지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루쉰 공원(홍구공원- 윤봉길 의사)
- ▣ 1936년 상해각계구국연합회 결성
- ▣ 항일전쟁

Ⅲ. 사회주의시기 상하이에서 개방을 통한 금융 중심지 상하이로의 변환

- ▣ 1. 도시의 혁명적 개조
- ▣ 자산계급의 가마솥-
- ▣ 신체제의 모범생, 계획경제의 표본으로 급변- 폐쇄적 공업도시로
- ▣ 아편문제와 매춘문제
- ▣ 기업의 국영기업화, 단위체제로의 전환
- ▣ 1951년 <무훈전武訓傳>에 대한 비판운동

문화인, 노동자 탄압

- ▣ 1955년 후평(胡風) 사건
- ▣ 상하이의 유명한 신문 <문화보文匯報>는 마오쩌둥의 지지로 1956년 복간
- ▣ 철저히 공격받고 편집위원 6명과 기자 15명이 우파로 몰림
- ▣ 1만 6299명이 상해에서 우파분자/ 1154명이 반혁명분자로 처벌
- ▣ 노동자 층은 파괴분자란 명목으로 4543명이 탄압을 받음

극좌파의 형성

- ▣ 1955년 상하이 시장겸 당서기 커칭스(柯慶施)- 1959년 당간부들을 서남쪽 변두리의 노동자 신촌으로 거주지를 옮김
- ▣ 사교춤을 전면 금지시킴
- ▣ 문화대혁명기의 사인방인 장춘차오(張春橋)와 야오원위안(姚文元)도 상하이 출신

문학의 발동

- ▣ 1962년 / 1965년 가을 마오와 장칭이 상하이에 옴
- ▣ 야오원위안이 <문화보>에 베이징시 부시장이자 명사연구자 우한(吳晗)의 <해서파관>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
- ▣ <야오원위안은 아저씨로 부르던 호풍을 비판>
- ▣ 이제 상하이가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의 발상지가 되고 상하이방(幫)이 결성되었고 (장칭과 Kang성포함) 베이징을 공격하는 진지가 됨

- ▣ 상하이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
- ▣ 1958년 상하이 노동자들 마오쩌둥 사상학습 운동전개
- ▣ 15000개의 학습소조에 20만여명이 참가
- ▣ 상하이 전시민이 참여하는 혁명시가(革命詩歌)운동이 진행

- ▣ 장칭이 주도한 혁명 모범극 작가의 대부분은 상하이출신
- ▣ 1967년 1월 상하이꿈윤이 건립.
- ▣ 1968년 상하이교향악단 지휘자가 장칭의 혁명모범극에 반대한 이유로 총살을 당함

- ▣ 1967년 상하이 꿈윤
- ▣ 노동자들간 다툼은 계속
- ▣ 이러한 이유는 사회주의 시기에도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동자들간의 임금과 지위의 차이가 존재하고 인센티브가 주어져 노동자들간 격차가 생긴 점
- ▣ 숙련노동자와 일반노동자간의 차이, 공산당에 의해 공장의 운영이 좌우되는 상황 등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잠시 노동자간의 일률적 평균주의가 발생했지만 1969년 이후 다시 예전으로 회귀

2. 모던문화와 혁명문화의 충돌, 변용

- ▣ 해방군 제 3야전군 군인과 문민 간부들이 상하이에 들어 오게 되었고 이들은 대개 산둥 출신
- ▣ 군인문화, 농촌문화, 북방문화의 색채를 띤 이들이 점령군, 개조를 주도한 사람들
- ▣ 왕안이(王安億)의 소설<친절한 할머니와 리李동지>는 레닌복을 입은 산둥 출신 문예공작단을 상하이의 세련된 소시민 문화를 전파하는 할머니를 묘사한 것으로 이들의 문화에 오히려 영향을 끼친 것으로 설명됨

IV. 개혁개방과 상하이

1. 쇠퇴하는 거인에서 비상하는 화살촉으로
 - ▣ 중국의 개혁개방- 1984년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경제특구 지정, 상하이는 연해 개방도시 14개에 포함
 - ▣ 개혁개방이전 수출, 재정수입 전체 1위에서 광저우 등에 밀려 하락
- 1.

I)상하이의 재도약- 푸둥 개발1992

- ▣ 개혁개방 초- 선전(深川), 광둥 경제특구설립 (珠江삼각주) 발전
- ▣ 상하이는 ‘쇠퇴하는 거인 증후군’-위텐바이 소설(대상하이의 침몰)
- ▣ 1988년 푸둥 개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 --상해를 경제 중심, 대내외 중심 시장으로 건설
- 주룽지 (朱镕基)시장

- ▣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 ▣ 국가급 프로젝트를 통해 재도약
- ▣ 중국 동부 연안은 활, 창장은 화살, 상하이는 화살촉으로 비유됨, 태평양을 향해 날아감 비유
- ▣ <푸둥의 조성>(浦東)
- ▣ 루자쭈이 금융무역구
- ▣ 와이차오교 보세구-자유무역구
- ▣ 진교 수출가공구- 자본 및 기술 밀집형 지구
- ▣ 창장 고도과학기술권구

화살촉 상하이



- ▣ 마틴 자크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2050년 중국이 문명의 맹주가 되며
금융의 중심은 상하이가 될 것”
- ▣ 동방명주(東方明珠)=TV송신탑(468미터)
아시아의 진주가 홍콩에서 상하이로 이동
- ▣ “중국 동부연안이 거대한 활이라면 양쯔강은
화살, 상하이는 화살촉으로 태평양 겨냥”
- ▣ 중국경제의 허브에서 세계경제의 허브로”

- ▣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가자(借船出海)- 투자유치를 통해 발전을 꾀한다는 것을 의미의 정책으로 이룩한 것
- ▣ 불야성을 이루는 상하이의 마천루와 화려한 호텔들 아파트 분양 등 새로운 소비문화가 변화된 공간조성과 함께 생활양식에도 변화
- ▣ 바이링(白领)계층이라는 화이트칼라 계층이 소비를 주도하게 되고 각종 바와 카페 등의 공간적 변화와 함께 미디어의 확대

2) 이민자 문제: 급격한 인구유입과 유동

강제개항 이후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구 폭증
1840-10만

1915-200만

1949-520만(본토인은 15-25%에 불과)- 상해
인근의 장쑤성, 저장성, 안휘성 이민자

1949-1978년 정체

1992년 이후 새로운 이민 유입

2002년 **WTO가입**을 계기로 더욱 발전- 중국
경제체제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2007년 인구 **1858만**

상하이 戶口 보유인구 1370만

외지인은 488만으로 전체의 26%

유동인구 660만을 포함하면 (농민공 외)

= 2518만 명 전체 46%가 외지인

상하이 이민자

- ▣ 농민공/ 하이꾸이파(海歸派)-고급두뇌(新상하이런, 싱크탱크)
- ▣ 이민자 중 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 원저우(溫州): 출신이 주요 경제분야에 포진

戶口제도로 인한 문제- 외지인은 4대보험(사회보장제도) 지급이 안되며 까다로운 절차로 호구를 얻기 어려움

부유층과 노동자간의 사회격차 심화

호구와 농민공

- ▣ 오늘날 상하이의 발전은 이러한 농민공을 포함한 유동인구들의 노력이 함께 작용한 것
- ▣ 상하이 호구를 취득하지 못하는 대다수 농민공과 그들의 자녀들은 학교진학은 물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임
- ▣ 당연히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주거문제도 심각
- ▣ 2000년대 워쥬(달팽이집) (蝸居)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끈 것도 이와 관련
- ▣ 급속한 부동산 시장의 팽창과정에서 각종 부패 문제가 속출했고 부의 편중현상과 빈부격차의 문제가 발생

상하이 엑스포(2010)

- ▣ 2002년 12월 3일 상하이가 2010년 엑스포 개최권 획득(일본 오사카 엑스포)
- ▣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중국 경제성장의 메가 이벤트가 됨
- ▣ 상하이 엑스포 부지는 상하이시 관통하는 황푸장에 총면적 5.28제곱킬로미터 확보
- ▣ 기존 빈민지역을 새롭게 조성
- ▣ 중공업 기지는 교외로 이전, 18000명은 신규 아파트로 이동

Better City, Better Life

- ▣ 성공적 도시화 과정을 보여주고 **지속가능 발전을 선포(친환경)**
- ▣ 엑스포를 통해 2010년 1인당 GDP 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함
- ▣ 관람객 7천만
- ▣ 개최준비기간 동안 상하이 GDP 의 25%이상, 창장 삼각주 지역투자 30%이상 향상
- ▣ 일자리 창출, 시민의식의 제고

- ▣ <고속철도>(2010)
- ▣ 장쑤성 난징- 저장성
- ▣ 항저우- 상하이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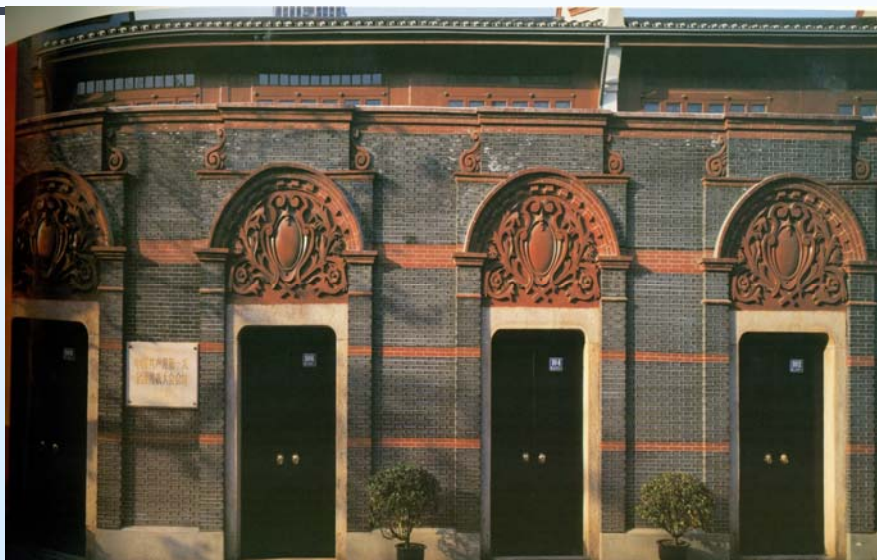
- ▣ 계획- 2020년까지 상하이 반경 300킬로 이
내 창장 삼각주 16개 도시를 고속철로 연결
하여 상하이 반경 600킬로까지 1일 생활권
에 놓이게 하려 함

상하이의 서구화된 생활양식과 휴가

- ▣ 높은 IT 인프라 보급률 : 문화소비와 관련
- ▣ 영화, 연극 미술관, 음악감상 등의 문화활동
- ▣ 신문,잡지, 인쇄매체,TV 등의 영상 매체 등
매체선호적 경향
- ▣ 상하이 도시의 문화생활을 즐김
- ▣ 상하이의 음식과 주거문화
- ▣ 10-11월의 블루크랩(상하이 털게, 민물게)

2. 모던 상하이 노스텔지어

- ▣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상하이를 조성
- ▣ 짝퉁거리- 돈으로 만든 가짜 문화
- ▣ 우리상(屋里厢)- 상해말로 집, 스쿠먼 박물관- 과거는 빛 바랜 사진 속으로
- ▣ 주택문제는 매우 심각- 2009년 드라마 워쥬



- ▣ 세계주의, 코스모폴리탄적 문화
- ▣ 현재 고급 카페와 와인바가 즐비한 "신텐디(新天地)"
- ▣ 예전의 오래된 공간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재개발 프로젝트의 결과
- ▣ 진정한 문화의 상실
- ▣ 민중들의 거주지를 외관만 남긴 채 내부를 완전히 개조
- ▣ 고급 소비 공간으로 탈바꿈시킴
- ▣ 상하이의 주민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문화를 잃어버린 채 상품으로서 소비하는 법을 익힌다고 비판됨

3. 상하이의 정체성과 중국의 미래

- ▣ 상하이는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상하이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오프라인적 상하이인들의 시위도 일어나는 등 근대적 인프라에 걸맞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상하이의 코스모폴리탄적 개방적 특성과 관련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상하이는 상하이만의 시편찬 교과서를 만들려는 논의도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에 동반된 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은가. 오히려 경제적 소득우위에 따른 소비문화의 확산이 정치적 변화추구를 약화시키도록 작용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상하이의 식민지적 굴절된 근대 경험, 사회주의시기 경험과 유산,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 등 경제발전과 자유로운 공간의 확대, 빈부격차라는 사회적 문제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미래의 구상에 대한 상하이 경험이 어떠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근대경험에서의 로컬문제

- ▣ 상하이의 근대도시로의 성립과정은 서구 자본과 기술이 기회와 제약의 측면을 모두 지님
- ▣ 서구문물을 수입하며 매판이나 민족자본가, 외국자본과 경쟁 속에서 내셔널리즘으로 고취됨.
- ▣ 일국차원에서 논할 때 중국의 한계는 상하이의 근대화를 지역적 현상으로만 남기고 상하이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확대시키지 못한 점일 수 있음

- ▣ 김윤희, 『상하이-놀라운 번영을 이끄는 중국의 심장』, 살림, 2008
- ▣ 박자영, 「상하이 노스텔지어: 중국 대도시문화현상 사례와 관련 담론 분석」. 『중국현대문학』, 제30호, 2004년 pp. 91~122.
- ▣ 홍석준, 「개혁개방 이후 상하이 시민문화의 특징과 의미」, 『중국현대문학』 제40호, 2006, 195-215.